

『素問·痿論』의 獨取陽明에 대한 고찰

¹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 ²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大學院生

安鎮燾^{1*} · 徐準皓²

A Study on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in 『Suwen·Weilun』

Ahn Jin-hee^{1*} · Suh Jun-ho²

¹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²Graduate Student in the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medical experts understood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for clinical application.

Methods : After collecting medical texts related to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its meaning and clinical application were examined thoroughly.

Results : 1. The meaning of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was identifi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meaning of ‘Yangming.’ It was perceived as Stomach, Yangming meridian, Stomach meridian of Foot Yangming, Spleen and Stomach, Intestine and Stomach by medical experts.

2. Chen Wu-ze and Liu Wan-su understood Wei disease as a form of consumption, and regarded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as tonifying Yangming while Zhang Zi-he put emphasis on Communicating Stomach Qi(胃氣) through vomiting or purgation. Sun Yi-kui insisted on applying it as a precaution.

3. Li Dong-yuan emphasized the cause of Wei disease to be Damp-Heat in the Summer and suggested Qingshuyiqitang and Qingzaotang as remedy.

4. Zhu Zhen-heng’s Purging the South and Reinforcing the North is a more fundamental way of treating Wei disease by stimulating the Water-Fire Axis.

Conclusions : Through a diachronic study of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and its remedy, most medical experts regarded ‘Specially Selecting Yangming’ as tonifying Yangming, but tonifying Liver and Kidney was thought to be a more fundamental treatment.

Key words : Suwen·Weilun(素問·痿論), Wei Disease(痿病), Specially Selecting Yangming(獨取陽明), Consumption(虛勞), Reducing the South and Reinforcing the North(瀉南補北)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October 28, 2019), Revised(November 7, 2019), Accepted(November 7,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素問·痿論』은 『素問』 81편 중 44편이고, 「痺論」, 「厥論」 등과 더불어 형체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¹⁾ 『素問·痿論』에 나타난痿病은 단지 형체의 질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悲哀太甚, 思想無窮, 所求不得 등 정신적인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다발성신경염, 급성척수염, 진행성근위축증, 중증근무력증, 근영양불량증, 중추신경감염에 병발하는 소아마비후유증 등의 현대적 질환을 포괄하고 있다.²⁾

『素問·痿論』의 처음 문단에서 五藏이痿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五藏熱로 인하여痿躄, 脈痿, 筋痿, 肉痿, 骨痿가 발생한다고 했고, 중간 문단에서 五藏은 肺熱葉焦로 인하여痿躄을發하게 된다고 했다.痿躄은 『素問·痿論』의 서두에서 “肺는 몸의皮毛을 주관하고, …… 腎은 몸의骨髓를 주관하므로 肺에熱이 나서 肺葉이 타면 皮毛은 虛弱해지고 당겨지며 얇아져 고착되면痿躄이 생긴다.”³⁾라고 할 때 한 번 언급이 되었다. 이때는 筋脈·血脈·肌肉·皮毛·骨髓의 五痿 중痿躄이 肺와 관련된 것처럼 언급되었는데, 중간 문단에서 “肺는 五藏의 우두머리로 心의 덮개이다.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肺가 울게 되고, 肺가 울면 肺에熱이 나서 肺葉이 타므로 말하기를 五藏이 肺가 열이 나서 肺葉이 타는 것으로 인하여痿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을 일컫는다.”⁴⁾라고 할 때에痿躄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지만, 이때는 서두의 문단에서痿躄이 肺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언급된 데에 비하여 五痿 전체와 관계되는 것으로 변하여 肺熱이痿病에 있어서 중요한 기시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변모되었다.

그러나 五痿의 증상, 病機, 진단법을 말한 뒤에 黃帝가 “論에서痿病을 치료하는 것은 다만 陽明을 취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⁵⁾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岐伯이 陽明이痿病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에서는 肺에熱이 나서 肺葉이 타는 것이 五痿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肺熱을 당장 瀉하는 법을 논의하기 보다는 陽明을 取하고, 陽明이 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宗筋, 衝脈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痿病 치료법을 살펴보면 꼭 陽明과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통시적으로 醫家들의 獨取陽明에 대한 이론과痿病 치료법을 살펴서 醫家들이 獨取陽明을 어떻게 이해하여 이를 치료에 응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다.

‘獨取陽明’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여러 편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白裕相의 『黃帝內經·痿論』의痿證에 대한 考察⁶⁾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素問·痿論』의 내용에 충실하게 獨取陽明의 원래 의미를 풀어서 잘 설명하였으나, 이를 실제 醫家들의 처방과 연계하지는 않았다.

‘獨取陽明’과 관련한 중국 논문들은 陽明이 手陽明인지 足陽明인지 奇經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한 논문⁷⁾,痿病의 病機와 陽明과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⁸⁾, 獨取陽明의 獨取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 논문⁹⁾¹⁰⁾, 침구 치료에 있어서痿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穴位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 논문¹¹⁾,

1) 白裕相. 『黃帝內經·痿論』의痿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1). pp.1-10.
 2) 趙世運, 尚學瑞. 治痿獨取陽明闡義. 中醫研究. 2003, 16(5). pp.65-66.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66-167. “肺主身之皮毛, …… 腎主身之骨髓. 故肺熱葉焦, 則皮毛虛弱, 急薄者則生痿躄也”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66-167. “肺者藏之長也, 爲心之蓋也. 有所失亡, 所求不得, 則發肺鳴, 鳴則肺熱葉焦, 故曰, 五藏因肺熱葉焦, 發爲痿躄, 此之謂也.”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66-167. “帝曰: 如夫子言可矣, 論言治痿者, 獨取陽明何也.”
 6) 白裕相. 『黃帝內經·痿論』의痿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1). pp.1-10.
 7) 曹繼忠, 濶川胤. 痿證之“治痿獨取陽明”淺析.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8. 18(92). pp.205-206.
 8) 王寶華, 趙京生. “治痿獨取陽明”考釋. 北京中醫藥. 2010. 29(7). pp.520-521.
 9) 王中琳, 王新陸. 《內經》論痿探蹟.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2. 26(5). pp.328-329.
 10) 張邵青, 邱美榕, 吳追樂. “治痿獨取陽明”的古今研究及臨床應用. 陝西中醫藥大學學報. 2016. 39(2). pp.9-12.
 11) 鞠申丹, 宗蕾. 從“治痿獨取陽明”談痿證的針灸治療. 中國針

鍼藥을 결합해서 치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¹²⁾, 瘀血의 관점과 연관시켜 논의한 논문¹³⁾, 당뇨병성골다공증, 당뇨병말초신경병변, 특발성폐섬유증 등의 현대 질병과 연관시켜 다룬 논문들¹⁴⁾¹⁵⁾¹⁶⁾이 있었으나, 醫家들의 獨取陽明 이론과 실제 처방 내용을 함께 연결시켜서 다룬 논문은 드물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獨取陽明’을 醫家들이 어떻게 이해하여 이를 치료에 응용하였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素問·痿論』의 獨取陽明

『素問·痿論』에서 五痿의 증상, 病機, 진단법을 말한 뒤에 黃帝가 岐伯의 말을 수궁하면서 “論에서痿病을 치료하는 것은 다만 陽明을 취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¹⁷⁾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岐伯이 “陽明은 五臟六腑의 바다이고, 宗筋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며, 宗筋은 뼈를 묶어주고, 관절을 활리하게 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衝脈은 經脈의 바다로 肌肉의 틈새(谿谷)로 영양분을 대주되 陽明과 더불어서 宗筋에서 합쳐지니, 陰陽이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여 氣街에서 모이고,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니, 모두 帶脈에 속하고, 督脈에 이어지므로 陽明이 虛하면 宗筋이 늘어지고, 帶脈이 당겨지지 않으므로 다리가 痿弱해져 잘 쓰지 못하게 된다.”¹⁸⁾고 陽明이

灸. 2015. 35(9). pp.956-959.

12) 樊永平. 痿證理論的源流.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1. 34(1). pp.12-17.

13) 劉永剛 外 4人. “治痿獨取陽明”新解. 四川中醫. 2012. 30(4). pp.51-53.

14) 徐文霞, 舒儀瓊, 方朝暉. 試從“治痿獨取陽明”論治糖尿病骨質疏鬆症. 河北中醫. 2019. 41(7). pp.1094-1097.

15) 寧魯寧 外 3人. 從“治痿獨取陽明”論治糖尿病周圍神經病變. 四川中醫. 2018. 36(10). pp.3-6.

16) 劉森 外 4人. 基於“治痿獨取陽明”論治特發性肺纖維化. 中華中醫藥學刊. 2018. 36(6).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66-167. “帝曰: 如夫子言可矣, 論言治痿者, 獨取陽明何也.”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66-167. “岐伯曰: 陽明者, 五臟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

痿病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가들의痿病 처방을 보면 꼭 陽明과만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통시적으로 醫家들의 獨取陽明에 대한 이론과痿病 치료법을 살펴서 醫家들이 獨取陽明을 어떻게 이해하여 이를 치료에 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獨取陽明에 대한 諸家の 견해

『素問·痿論』에서痿病의 치료에 ‘獨取陽明’을 언급한 후에 여러 醫家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⁹⁾

1) 陳無擇의 견해

陳無擇의 논설 중痿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三因極一病證方論·五痿叙論』에 나온다.

“무릇 사람 몸에는 皮毛, 血脈, 筋膜, 肌肉, 骨體가 있어서 形을 이루고 있는데, 안은 肺心脾肝으로써 주관한다. 만약 감정에 따라 망령되어 쓰고, 기쁘고 화내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지 않으며,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혹은 너무 일을 안 하고 단일한 상래가 겸하여 아울러지면 內臟의 精血이 虛해지고 모순되어 榮衛가 度數를 잃어서 寒熱이 발생하여 皮, 血, 筋, 骨, 肌肉으로 하여금 痿弱하게 하여 운동할 힘이 없게 하므로 痿變에 이르게 하는데, 그 양상이 柔風脚弱과 비슷하므로 脈과 證으로써 원인을 구별하여야 하고 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柔風脚弱이 모두 外因이라면 痿變은 內臟의 氣가 不足한 데서 발생하므로 마땅히 이를 살펴야 한다.”²⁰⁾고 했다.

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摠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故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仁, 故足痿不用也.”

19) 醫家들의 선택은 四庫全書에서 ‘獨取陽明’을 검색어로 검색한 후에 ‘獨取陽明’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醫家들을 위주로 선택하였음을 밝혀둔다.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

20) 商務印書館 編. 三因極一病證方論(欽定四庫全書 11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270. “夫人身之有皮毛, 血脈, 筋膜, 肌肉, 骨體, 以成形, 內則肺心脾肝以主之. 若隨情妄用, 喜怒不節, 勞逸兼併, 致內臟精血虛耗, 榮衛失

이는 痿病을 外因이 아니라 內因, 즉 內臟氣의 부족에 초점을 두어 살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陳無擇의 논설 중 獨取陽明과 관련된 내용은 『三因極一病證方論·五痿治法』에 나온다.

“모든 痿를 치료하는 법은 마땅히 陽明과 衝脈을 길러줘야 한다. 陽明은 胃를 주관하고, 胃는 五臟六腑의 바다로 宗筋을 온액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脈을 묶어줌으로써 關節을 활리하게 하는 것이다. 衝脈은 모든 經의 어머니로 谿谷에 관계하는 것을 주관하며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서 합쳐지고, 氣街에서 만난다. 帶脈에 속하며, 督脈에 이어진다. 그러므로 陽明이 虛하면 宗筋이 늘어지고, 帶脈이 행하지 못하므로 다리가 痿弱해져 쓰지 못하게 된다.”²¹⁾고 하였다.

陳無擇은 痿病을 內臟의 精血이 소모되어 야기되는 內傷 질병으로 파악하였고, 『三因極一病證方論·五痿治法』에서 痿病과 관련하여 加味四筋丸, 藥角丸, 上丹, 衛生湯, 中丹, 小丹, 芎藭散, 藿香養胃湯 등을 제시하였다.

加味四筋丸은 肉蓯蓉, 牛膝, 木瓜, 菟絲子, 鹿茸, 熟地黃, 天麻, 五味子 등이 들어가는 처방으로 胃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肝腎虛를 목표로 만들어진 처방이고, 藥角丸은 藥角, 熟地黃, 大附子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腎陰과 腎陽을 전체적으로 補하는 것이다.

上丹은 五味子, 百部根, 菟絲子, 肉蓯蓉, 杜仲, 巴戟, 遠志, 枸杞子, 防風, 白茯苓, 蛇床子, 山藥, 柏子仁 등으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養五臟, 補不足, 降心火, 交腎水, 益精氣하여 心腎相交를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陳無擇의 이 처방은 朱震亨이 痿病의 치료 강령으로 주장한 瀉南補北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衛生湯은 當歸, 白芍藥, 黃芪, 甘草로 구성되어 氣血을 補함으로써 補虛勞, 強五臟, 養胃, 益精하고, 中丹은 黃芪, 白芍藥, 當歸, 白茯苓, 人參, 桂心, 川椒, 大附子, 黃芩으로 구성되어 氣血을 補하고 腎陽을 북돋음으로써 脾胃氣衰, 精血妄行을 다스린다.

小丹은 熟地黃, 肉蓯蓉, 五味子, 菟絲子, 柏子仁, 天門冬, 蛇床子, 覆盆子, 巴戟, 石斛, 續斷, 澤瀉, 人參, 山藥, 遠志, 山茱萸, 菖蒲, 桂心, 白茯苓, 杜仲, 天雄 등으로 구성되어 補勞益血하고, 芎藭散은 川烏頭, 川芎, 桂心, 甘草, 乾薑으로 구성되어 中風을 다스리고, 四肢疼痛, 軟弱, 行履不便을 치료하며, 藿香養胃湯은 藿香, 白朮, 白茯苓, 神麩, 烏藥, 縮砂仁, 薏苡仁, 半夏麩, 人參, 葶澄茄, 甘草로 구성되어 胃虛不食과 四肢痿弱, 行立不能을 치료한다.²²⁾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陳無擇은 痿病의 원인을 內臟氣의 不足으로 보았고, 獨取陽明의 陽明을 胃로 보았는데, 그가 痿病 치료에 제시한 처방을 살펴보면 衛生湯, 藿香養胃湯 등은 陽明虛를 補한다고 할 수 있으나, 加味四筋丸은 肝腎虛를 補하고, 藥角丸은 腎陰과 腎陽을 補하며, 上丹과 小丹은 心腎相交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上丹, 小丹 등의 心腎相交를 목표로 하는 처방들은 朱震亨이 痿病 치료의 강령으로 제시한 瀉南補北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볼 때 『素問·痿論』에서 痿病의 치료법으로 獨取陽明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陳無擇은 補氣補血의 방법 이외에도 補肝腎 혹은 心腎相交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陳無擇이 內臟氣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 後者의 방법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2) 劉完素의 견해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五運主病』에서 痿病이 肺金에 속한다고 하였다. 원래 『素問·至真要大論』에는 “諸氣臏鬱, 皆屬於肺.”²³⁾로 되어 있는데, 劉完素

度, 發爲寒熱, 使皮筋骨髓內, 痿弱無力以運動, 故致痿躄狀, 與柔風脚弱相類, 以脈証併所因別之, 不可混濫, 柔風脚弱, 皆外所因, 痿躄則屬內臟氣不足之所爲也. 宜審之.”

21) 商務印書館 編. 三因極一病證方論(欽定四庫全書 11 子部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271. “治諸痿法, 當養陽明與衝脈, 陽明主胃, 乃五臟六腑之海, 主潤宗筋束骨, 以利機關. 衝脈者, 諸經之母, 主灌溉谿谷, 與陽明合養於宗筋, 會于氣街, 屬於帶脈, 絡於督脈, 故陽明虛, 則宗筋縱, 帶脈不行, 故足痿不用也.”

22) 陳無擇 著.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13-115.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3. “諸氣臏鬱, 皆屬於肺.”

는 諸氣臏鬱 뒤에 病痿를 덧붙여서 痿病이 肺金에 속함을 명시하였다.

“모든 氣의 병변으로 살이 부풀어 오르거나 울체되거나 痿病을 앓는 것은 모두 肺金에 속한다. 臏은 살이 부풀어 가득함을 일컬고, 鬱은 달아나 다그침을 일컬으며, 痿는 手足이 痿弱하여 운동할 힘이 없는 것을 일컫는다. 대저 肺는 氣를 주관하고, 氣는 陽이 되며, 陽은 가볍고 밝아서 상승하는 것을 주관하므로 肺는 上部에 거처한다. 병이 들면 그 氣가 가득하고 다그침을 받아 상승하여 手足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몸을 거두어 지탱하지 못한다. 肺金은 본래 燥에서 말미암으니, 燥의 病은 血液이 적어져서 모든 脈을 영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經에서 말하기를 手指가 血을 얻으면 능히 집을 수가 있고, 손바닥이 血을 얻으면 능히 손에 움켜쥘 수가 있으며, 발이 血을 얻으면 능히 걸을 수가 있으므로 秋金이 왕성하면 안개 기운이 울체되어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는데 病의 象이다. 萎는 痿와 같다.”²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劉完素는 痿病을 가을에 金氣가 왕성해져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듯 肺燥에 기인한 병으로 보았다.

또한 劉完素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虛損論』에서 痿病을 虛勞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論에서 말하기를 虛損의 질병은 寒熱을 虛 때문에 감수하게 된 것이다. 寒을 감수하면 陽을 손상하고, 陽이 虛해지면 陰이 盛해진다. 損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 치료는 마땅히 辛甘淡으로써 하되 胃

를 지나치면 치료할 수가 없다. 熱을 감수하면 陰을 손상하고, 陰이 虛해지면 陽이 盛해진다. 그러므로 損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니, 치료는 마땅히 苦酸鹹으로써 하되 脾를 지나치면 치료할 수가 없다. 위로부터 손상되는 것은 一損은 肺에 손상을 주어 피부가 모여 모발이 탈락하고, 二損은 心에 손상을 주어 血脈이 虛少해져 臟腑를 영양할 수가 없고, 부인의 월경이 통하지 않으며, 三損은 胃에 손상을 주어 마시고 먹는 것이 肌膚가 되지 못한다. 아래로부터 손상되는 것은 一損은 腎에 손상을 주어 骨痿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二損은 肝에 손상을 주어 筋이 이완되어 스스로 거두어 지탱할 수가 없으며, 三損은 脾에 손상을 주어 飲食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 論에서 말하기를 心肺가 손상되면 色이 가려지고, 腎肝이 손상되면 形체가 痿弱해지며,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脾가 손상된 것으로 이 病을 감수한 경우에는 모두 損의 병으로 점차로 스며들어 깊어지니 모두 虛勞의 병이다.”²⁵⁾라고 했다.

이는 劉完素가 痿病을 虛勞病으로 본 것으로, 『素問·痿論』에서는 肺, 心, 肝, 脾, 腎의 순서로 五痿를 설명했는데, 劉完素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寒을 감수하여 陽을 손상하는 것으로 肺, 心, 胃의 순서로 진행되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熱을 감수하여 陰을 손상하는 것으로 腎, 肝, 脾의 순서로 진행됨을 말하여 『素問·痿論』과 차이를 보였다. 劉完素는 그의 책에서 獨取陽明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痿病을 가을에 金氣가 왕성해

24) 商務印書館 編. 素問玄機原病式(欽定四庫全書 12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710. “諸氣臏鬱病痿, 皆屬肺金. 臏, 謂臏滿也. 鬱, 謂奔迫也. 痿, 謂手足痿弱, 無力以運動也. 大抵肺主氣, 氣爲陽, 陽主輕清而升, 故肺居上部, 病則其氣臏滿奔迫, 不能上升, 至於手足痿弱, 不能收持, 由肺金本燥, 燥之爲病, 血液衰少, 不能營養百骸故也. 經曰, 手指得血而能攝, 掌得血而能握, 足得血而能步, 故秋金旺則霧氣蒙鬱, 而草木萎落, 病之象也. 萎, 猶痿也.”

25) 商務印書館 編. 素問病機氣宜保命集(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71. “論曰虛損之疾, 寒熱因虛而感也. 感寒則損陽, 陽虛則陰盛, 損自上而下, 治之宜以辛甘淡, 過于胃則不可治也. 感熱則損陰, 陰虛則陽盛, 故損自下而上, 治之宜以苦酸鹹, 過于脾則不可治也. 自上而損者, 一損于肺, 皮聚而毛落, 二損損于心, 血脈虛少, 不能榮于藏府, 婦人月水不通, 三損損于胃, 飲食不爲肌膚. 自下而損者, 一損于腎, 骨痿不能起于床, 二損損于肝, 筋緩不能自收持, 三損損于脾, 飲食不能消克. 論曰心肺損而色蔽, 腎肝損而形痿, 穀不能化而脾損, 感此病者, 皆損之病也. 漸漬之深, 皆虛勞之疾也.”

저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듯 肺燥에 기인한 병으로 보았고, 痿病을 虛勞病으로 파악하여 益氣補血益精하는 처방들을 주로 제시하였다. 劉完素가 痿病 치료를 위해 제시한 처방들은 益氣補血益精하는 四君子湯, 八物湯, 十全散, 金剛丸, 牛膝丸, 煨腎丸, 腎氣丸, 八味丸 등이다.

四君子湯은 人參, 白朮, 茯苓, 甘草로 구성된 처방으로 益氣하여 肺損으로 인한 皮毛 탈락을 치료하고, 八物湯은 四君子湯에 熟地黃, 當歸, 川芎, 芍藥으로 구성된 四物湯을 합방한 처방으로 益氣和血하여 心肺虛損으로 인한 皮毛 탈락과 부녀자의 월경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치료하며, 十全散은 八物湯에 黃芪와 桂枝가 더 들어가는 처방으로 益氣和血調飲食하여 心肺의 손상이 위에 미침으로 인하여 음식을 먹어도 살이찌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金剛丸은 萆薢, 杜仲, 肉蓯蓉, 菟絲子, 豬腰子로 구성된 처방으로 益精하여 腎의 손상으로 인한 骨痿를 치료하고, 牛膝丸은 金剛丸에 牛膝, 防風, 白蒺藜, 桂枝 등이 더해진 처방으로 益精緩中하여 腎肝의 손상으로 인한 骨痿를 치료하며, 煨腎丸은 牛膝丸에 胡蘆巴와 破故紙가 더해진 처방으로 益精緩中消穀하여 腎肝脾의 손상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腎氣丸은 蒼朮, 熟地黃, 乾薑, 五味자로 구성된 처방으로 養血益腎하여 肝腎不足을 치료하고, 八味丸은 熟地黃, 山藥, 山茱萸, 茯苓, 澤瀉, 牡丹皮, 附子, 肉桂 등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溫補腎陽하여 腎陽不足을 치료한다.²⁶⁾

이로써 살피건대 劉完素는 陽明의 氣血을 補하는 처방뿐만이 아니라 肝腎을 補하는 처방을 제시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3) 張子和의 견해

張子和의 논설 중 獨取陽明과 관련된 내용은 『儒門事親·指風痺痿厥近世差玄說』에 나온다.

“痿의 증상은 두 다리가 痿弱하여 걸을 수가 없는

것인데, 腎水가 心火를 이길 수 없고, 心火가 위로 肺金을 태워 肺金이 火의 억제를 받으면 여섯 개의 肺葉이 모두 타서 皮毛가 허약해지고 急해지며 얇아져 고착되면 痿躄이 생긴다. 躄은 다리가 능히 퍼져 걸을 수가 없는 것이고, 腎水는 곧 肺金의 자식인데, 腎水로 하여금 쇠하고 적어지게 하면 火를 따라 위로 나오르게 된다. 腎은 두 다리를 주관하는데, 그러므로 骨髓가 쇠하고 고갈됨은 성생활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至真要大論』에서 이르기를, 모든 痿病과 喘息과 嘔逆은 모두 위(上)에 속한다고 했는데, 위(上)는 上焦이다. 三焦는 手少陽相火로, 痿病과 喘息과 嘔逆의 세 가지 질병은 모두 횡격막 위에 있으며, 肺金의 부분에 속한다. 그러므로 肌痺가 傳하여 脈痿가 되고, 濕痺로 감각이 없는 것은 傳하여 肉痿가 되고, 骨髓가 고갈되어 걸을 수 없게 된 것은 傳하여 骨痿가 되고,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筋痿가 되는데 傳하여 白淫이 된다. 대체로 痿라는 질병은 모두 客熱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걸핏하면 욕심을 부려서 色을 탐하여 억지로 힘을 써서 과도하여 다하게 되면 점점 痿疾을 이루게 되므로 痿躄은 肺에 속하고, 脈痿는 心에 속하고, 筋痿는 肝에 속하고, 肉痿는 脾에 속하고, 骨痿는 腎에 속하는데, 총괄하면 肺가 火熱을 받아 肺葉이 탔기 때문에 四臟으로 서로 전해져 痿疾이 이루어졌다. 곧바로 단호하게 말하기를 痿病은 寒이 없으므로 痿病이 생기는 것은 5월, 6월, 7월이 모두 그 때이다. 午는 少陰君火의 자리이고, 未는 濕土로 庚金이 火의 기세에 얽드려 있는 자리이며, 申은 少陽相火의 몫이므로 痿病은 이 3개월 내에 발생하여 熱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痿病을 앓는 사람은 그 脈이 浮하고 大하여 지금 藥을 쓰는 사람들이 무릇 다리와 무릎이 痿弱하여 걸기가 어렵거나 혹은 한 다리를 펼 수 없는 것을 보고 곧 寒濕脚氣로 여겨 다스릴 적에 자주 烏頭, 附子, 乳香, 沒藥, 自然銅, 威靈仙과 같은 부류의 약물을 쓰고, 燔針과 뜸과 끓인 물에 익히는 것과 자루

26) 商務印書館 編. 素問病機氣宜保命集(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71-73.

찜질을 하면 痿弱이 더욱 더해지게 되고, 이와 같이 하면 죽게 되니, 어찌 또한 하늘의 뜻이겠는가? 무릇 痿病을 치료하는 것은 痺病을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그 치료법이 매우 다르니, 風寒濕痺는 오히려 찜질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뜸을 뜨거나 燔針을 하는 것이 때때로 혹은 한 번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오직 痿病에 써서 더욱 심해지는 것은 어찌서인가? 대개 痿病은 肺熱을 근본으로 삼고, 肺葉이 타서 痿病을 이루어서 이로써 五臟에 전해짐이니, 어찌 寒이 있겠는가? 만약에 痿病을 寒으로 여겨서 치료한다면 이는 칼로 베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무릇 痿病은 죽지 않는데, 죽는다면 用藥이 잘못된 것이다. 陳下의 한 명의 武官인 宋子玉이 군대를 주둔하여 城에서 5~6월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痿病을 얻어 허리와 사타구니와 두 다리를 모두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질푽거리면서 걸지 못하여 나에게 치료해줄기를 요구했다. 그 두 손을 진찰해보니, 脈이 모두 滑大하고 힘이 있었다. 나는 『內經』에서 ‘火가 내부에 흘러넘치면 臟寒으로써 치료한다.’에 의거하여 소금물로 흥격 사이에 있는 寒熱宿痰을 토하게 했는데, 얼마 안 된 것은 熱이 되고, 오래된 것은 寒이 되며, 혹은 宿食과 宿飲이 上腕에 있는 경우에 모두 가히 涌吐하게 할 수 있는데, 宿痰이 이미 다하였기 때문에 瀉下하기를 수십 번 하니 神志가 날로 맑아지고, 음식은 날로 맛있어지며, 두 다리는 점점 들 수 있게 되고, 다리와 무릎은 점점 펴 수 있게 됨을 깨달았다. 心은 하강하고, 腎은 상승하여 계속해서 黃連解毒湯에 當歸 등의 藥을 더하고 瀉心湯, 涼膈散, 柴胡飲子 등을 大劑로 지어 달여서 때때로 마시게 했다. 經에서 말하기를, 心肺의 병을 치료할 때에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藥劑를 쓸 적에 자주 적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腎肝의 병을 치료할 때에는 가장 멀기 때문에 藥劑를 쓸 적에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내가 痿病을 치료할 적에 대수롭지 않게 그

방법을 썼는데, 마치 떨어뜨린 물건을 잡는 것과 같았다. 내가 만약 이로써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것은 마치 하늘에게 죄를 얻음과 같을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이에 宋子玉의 證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또한 내세에 증거를 보이려고 함이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일컫기를 痿病을 치료하는 법은 다만 陽明經을 취한다고 했는데, 陽明經은 胃脈이고, 五臟六腑의 바다로 주로 宗筋을 潤養하고, 宗筋은 뼈를 묶는 것을 주관한다. 뼈를 묶는다는 것은 배꼽 아래 陰毛 주변 위쪽이 이것이다. 또한 크게 관절을 활리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데, 機關은 몸 가운데의 큰 관절이다. 이로써 屈伸을 관장하니, 이로써 陽明이 虛하면 宗筋이 늘어지고, 宗筋이 늘어지면 大脈이 퍼지지 못하고, 두 발이 痿弱하다. 그리하여 陽明을 취한다고 한 것은 胃脈이다. 胃는 水穀의 바다가 되고, 사람은 사계절에 胃氣를 근본으로 삼는다. 근본이 견고하면 精으로 변화하고, 精으로 변화하면 골수가 채워지고, 골수가 채워지면 발로 능히 걸을 수가 있다. 『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形이 부족한 경우에는 氣로써 따뜻하게 하고, 精이 부족한 경우에는 味로써 補한다.’라고 했는데, 味는 五味이다. 五味가 조화로우면 가히 補精益氣할 수가 있다. 五味, 五穀, 五菜, 五菓, 五肉에서 五味는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겨 한편으로만 勝하게 할 수가 없다. 또 말하기를 ‘恬憺虛無하면 眞氣가 따르고, 精神을 안에서 지키니 병이 어디서 따라 오겠는가.’라고 했다. 만약 金石과 草木을 써서 補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래되어 氣를 증가시키면 사물 변화의 항상됨이요, 氣가 증가된 상태가 오래되면 일찍 죽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黃連과 苦參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 도리어 변화하여 熱이 되고, 熱藥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사람은 가히 寒心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일찍이 汗吐下 三法을 써서 風痺痿厥을 치료하여 그 효과를 얻은 것이 많았으니, 그 감히 후인들을 속일 수가 있겠는가.”²⁷⁾라

27)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고 하였다.

이를 통해 張子和가 陽明을 陽明經 혹은 胃脈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고, 痿病의 치료는 근본이 되는 胃氣를 견고히 하여 精化를 촉진시키고, 精化가 다시 骨髓를 충족시켜 걸을 수 있게 됨을 알 수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109. “痿之爲狀, 兩足痿弱, 不能行用, 由腎水不能勝心火, 心火上燦肺金. 肺金受火制, 六葉皆焦, 皮毛虛弱, 急而薄者, 則生痿躄. 躄者, 足不能伸而行也. 腎水者, 乃肺金之子也. 令腎水衰少, 隨火上炎, 腎主兩足, 故骨髓衰竭, 由使內太過而致. 然至眞要大論云, 諸痿喘嘔, 皆屬於上者, 上焦也. 三焦者, 手少陽相火也. 痿喘嘔三病, 皆在膈上, 屬肺金之部分也, 故肌痺傳爲脈痿, 濕痺不仁, 傳爲肉痿, 髓竭足躄, 傳爲骨痿, 房室太過爲筋痿, 傳爲白淫. 大抵痿之爲病, 皆因客熱而成, 好慾貪色, 強力過極, 漸成痿疾. 故痿躄屬肺, 脈痿屬心, 筋痿屬肝, 肉痿屬脾, 骨痿屬腎, 總因肺受火熱, 葉焦之故, 相傳於四臟, 痿病成矣. 直斷曰, 痿病無寒, 故痿之作也. 五月六月七月, 皆其時也. 午者, 少陰君火之位, 未者, 濕土庚金伏火之地, 申者, 少陽相火之分, 故痿發此三月之內, 以爲熱也. 故病痿之人, 其脈浮而大. 今之行藥者, 凡見脚膝痿弱, 難於行步, 或一足不伸, 便作寒濕脚氣治之, 驟用烏附乳沒, 自然銅, 威靈仙之類, 燔針, 艾火, 湯煮, 袋蒸, 痿弱轉加, 如此而死, 豈亦天乎. 夫治痿與治痺, 其治頗異. 風寒濕痺, 猶可蒸湯灸燔, 時或一効. 惟痿用之轉甚者, 何也. 蓋以痿肺熱爲本, 葉焦而成痿, 以此傳於五臟, 豈有寒者歟. 若痿作寒治, 是不刃而殺之也. 夫痿病不死, 死者用藥之誤也. 陳下一武弁宋子玉, 因駐軍息城, 五六月間, 暴得痿病, 腰勝兩足, 皆不任用, 躄而不行, 求治于予. 察其兩手, 脈俱滑大而有方, 予憑內經火淫于內, 治以鹹寒, 以鹽水越其膈間寒熱宿痰, 新者爲熱, 舊者爲寒, 或宿食宿飲在上脘者, 皆可涌之. 宿痰既盡, 因而下之, 筋數數十行, 覺神志日清, 飲食日美, 兩足漸舉, 脚膝漸伸, 心降腎升, 使繼以黃連解毒湯, 加當歸等藥, 及瀉心湯, 涼膈散, 柴胡飲子, 大作劑煎, 時時呷之. 經曰, 治心肺之病最近, 用藥劑不厭煩而少, 治腎肝之病最遠, 用藥劑不厭煩而多, 此法人皆怪之. 然余治痿, 尋常用之, 如拾遺物. 予若以此誣人, 其如獲罪于天何. 此宋子玉之證, 所以不得不書也, 且示信于來世, 故內經謂治痿之法, 獨取陽明經. 陽明經者, 胃脈也, 五臟六腑之海也, 主潤養宗筋. 宗筋主束骨, 束骨在膕下陰毛際上是也. 又主大利機關. 機關者, 身中大關節也, 以司曲伸. 是以陽明虛則宗筋縱, 宗筋縱則大脈不伸, 兩足痿弱. 然取陽明者, 胃脈也, 胃爲水穀之海. 人之四季, 以胃氣爲本, 本固則精化, 精化則髓充, 髓充則足能履也. 《陰陽應象論》曰: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 味者, 五味也. 五味調和, 則可補精益氣也. 五味, 五穀, 五菜, 五果, 五肉, 五味貴和, 不可偏勝. 又曰,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若用金石草木補之者, 必久而增氣, 物化之常, 氣增而久, 夭之由也. 所以久服黃連, 苦參者, 而反化爲熱, 久服熱藥之人, 不可不爲寒心哉. 余嘗用汗下吐三法, 治風痺痿厥, 以其得效者衆, 其敢誣於後人乎.”

있다. 즉 張子和는 獨取陽明의 의미를 胃氣를 견고히 하여 精化를 촉진시키고, 촉진된 精化가 骨髓를 충족시킴으로써 痿病이 치료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宋子玉을 치료할 때 痿病의 근본 원인을 肺熱로 보고 鹹寒한 소금물로 吐吐한 후에 瀉下하는 방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胃氣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胃氣가 소통되어 자신의 작용을 원활하게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補法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陰陽應象大論』의 구절을 인용하여 精不足을 味로 補해야 하는데, 그 味는 五味의 조화로움이라고 하면서도 金石과 草木을 써서 補할 경우 오래 되면 氣를 증가시키고, 氣가 증가된 상태가 오래 되면 일찍 죽게 된다고 하면서 恬憺虛無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恬憺虛無는 마음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니고 욕심 없이 텅 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眞氣가 따르게 되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眞氣는 元氣로 精氣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張子和가 痿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胃氣를 소통시켜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단지 약물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張子和의 恬憺虛無는 朱震亨이 痿病의 치료에 있어서 음식을 淡薄하게 먹는 것을 중요시한 것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張子和는 또한 痿病과 관련하여 『儒門事親·風形·痿』에서 자신이 치료한 痿病 醫案을 소개하였다.

“宛丘耆의 군 장교 세 명이 모두 痿病을 앓았는데 여러 해 동안 낫지 않고, 허리 이하로 붓고 아파서 들지를 못하였으며, 온몸이 부스럼으로 붉게 되었고, 두 눈은 어두컴컴하여 잘 안보였으며, 입술과 혀가 건조하여 戴人²⁸⁾에게 치료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戴人이 瀉下劑를 투여하려고 하자, 두 사람은 따르지 않고 다른 의사가 주는 溫補藥에 의탁되어 모두 죽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宋子玉이라는 사

28) 張子和의 號를 일컫는다.

람이 있었는데, 그가 깨달아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이미 熱로 죽었으니, 나는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戴人을 요청하였다. 戴人이 말하기를 '그대의 질병은 熱藥을 복용한지 오래 되어 먼저 그 藥의 邪氣를 없애 뒤에야 병의 邪氣에 미쳐 三百行을 瀉下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宋子玉이 말하기를 '존경하며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 먼저 舟車丸과 瀦川散으로 크게 한 동이쯤 瀉下하니 다음날 10분의 3 정도가 경감되었으며, 두 다리는 예전에는 무감각했으나 이 날에는 통증과 가려움을 느끼다가 누적된 횡수가 三百行에 이르자 비로소 편안해졌다. 戴人이 말하기를 '모든痿는 다만 陽明을 取하는데, 陽明은 胃와 大腸입니다. 이 말은 다만 鍼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鍼과 藥이 동일합니다.'"²⁹⁾라고 했다.

이 醫案을 통해 張子和가 陽明을 胃와 大腸으로 생각했으며, 치료법이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약물 치료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瀉下劑를 쓴 것으로 보아 取陽明의 의미가 기존 의가들과 같이 꼭 補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로 舟車丸은 大黃, 甘遂, 大戟, 芫花, 靑皮, 陳皮, 牽牛子, 木香 등이 들어가는 丸劑로 峻下逐水하고, 瀦川散은 大黃, 牽牛子, 郁李仁, 芒硝, 甘遂, 木香이 들어가는 散劑로 瀉下하는 효능이 있다.

이와 비슷한 논지는 張子和가 補法의 利害를 논하는 『儒門事親·推原補法利害非輕說』에도 나타나 있다.

29)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215. “宛邱營軍校三人皆病痿, 積年不瘥, 腰已下腫痛不舉, 遍身瘡亦兩目昏暗, 唇乾舌燥, 求療于戴人, 戴人欲投瀉劑, 二人不從, 爲他醫溫補之藥所惑, 皆死. 其同病有宋子玉者, 俄省曰, 彼已熱死, 我其改之, 敬邀戴人. 戴人曰公之疾服熱藥久矣, 先去其藥邪, 然後及病邪可下三百行, 子玉曰敬從教, 先以舟車丸瀦川散大下一盆許, 明日減三分, 兩足舊不仁, 是日覺痛痒, 累至三百行始安. 戴人曰諸痿獨取陽明, 陽明者胃與大腸也, 此言不止謂鍼也, 鍼與藥同也.”

“노인이 腎虛無力하여 밤에 소변을 많이 보았는데, 腎은 足을 주관하여 腎수가 虛하면 火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足痿가 나타나고 心火가 위로 肺를 타고 들어가지만 膀胱(脬囊)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밤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藥性이 峻烈한 것으로 補하면 火는 더욱 위로 행하게 되고, 膀胱은 더욱 차게 된다.”³⁰⁾

이는 足痿에 補法을 쓰면 上熱下寒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峻補하는 약제들의 藥性이 주로 燥한데, 腎은 燥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補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張子和는 陽明이 陽明經, 胃脈, 胃氣, 胃와 大腸 등이 될 수 있음을 표명하였고, 取陽明의 의미를 胃氣를 소통시켜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涌吐 혹은 瀉下하는 방법을 썼으며, 胃氣의 소통이 精化로 연결되어 骨髓가 충족해지면 痿病이 치료되는 것으로 보았고,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恬憺虛無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며, 獨取陽明이 鍼뿐만이 아니라 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李東垣의 견해

李東垣의 논설 중 獨取陽明과 관련된 내용은 『內外傷辨惑論·暑傷胃氣論』에 나온다.

“刺志論에서 말하기를 '氣虛身熱한 것은 暑邪에 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熱이 氣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痿論에서 이르기를 '멀리 가서 피로하고 노련한 상태에서 큰 열을 만나 갈증이 나면 陽氣가 안을 치게 되고, 陽氣가 안을 치면 열이 腎에 머문다. 腎은 水臟으로 지금 水가 火를 이기지 못하면 뼈가 마르고 髓가 허하여 다리가 몸을 책임지지 못하여 骨痿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下經에서 말하기를 骨痿

30)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143. “老人腎虛無力夜多小便, 腎主足, 腎水虛而火不下, 故足痿心火上乘肺而不入脬囊, 故夜多小便, 若峻補之則火益上行, 脬囊亦寒矣.”

는 큰 熱에서 생긴다.'라고 했다. 여기서 濕熱이 痿를 이루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뼈를 뺨진하게 하여 힘이 없게 하였으므로 痿病을 치료함에 다만 陽明을 취하라고 하였다. 때에 長夏를 당하여 濕熱이 크게 勝하고, 찌는 듯 하고 불길기 타오르는 듯 하며 사람들이 많이 감수하여 四肢가 피곤하고, 정신력이 약해지며, 움직임이 게을러지고, 가슴이 그득하여 氣가 축급하고, 脉이 沈하고 관절의 마디가 아프거나 혹은 氣가 높아서 숨을 헐떡이고, 몸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心下가 팽만하면서 痞하며, 小便이 누르고 적으며, 大便이 묽고 자주보거나 혹은 이질 설사가 나오는 것이 누런 죽의 형태이거나 혹은 쌀뜨물과 같거나 혹은 갈증이 있거나 혹은 갈증이 없고 음식 생각이 없으며, 自汗이 나고 몸이 무겁거나 혹은 땀이 적은 경우 血이 먼저 병들고 氣가 병들지 않았으니, 그 脈 중에 洪緩함을 얻었다. 만약에 濕熱이 서로 부딪히면 반드시 증세가 더해지게 된다. 느릿느릿 병이 비록 상호 교체되어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덥고 습한 것은 동일하니, 마땅히 清燥한 처방으로 다스리는데, 이룸하여 清暑益氣湯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했다.

『內外傷辨惑論』에서는 骨痿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실 환경에서는 여름 장마 때 濕邪와 熱邪가 합쳐져 四肢에 영향을 주어 骨痿의 병증으로 나타남을 말하였다.

李東垣의 濕熱性 痿病 관련 논설은 『脾胃論·濕熱成痿肺金受邪論』에도 나타난다.

"6, 7월 사이에 濕수이 크게 행해져 자식이 능히 어머니로 하여금 實하게 하여 열이 왕성해지면 濕熱이 서로 합해져서 大腸에게 형벌을 주므로 寒涼함으로써 燥金이 濕熱의 사기를 받은 것과 寒水가 生化하는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을 구제한다. 근원이 끊어지

면 腎이 휴손되어 痿厥의 병이 크게 일어나 허리 이하로 痿弱해지고 癱瘓하여 움직일 수가 없으며 걷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두 다리가 기울어져 있으니, 清燥湯으로 다스린다."³¹⁾라고 했다.

이처럼 李東垣은 痿病을 이루게 하는 여러 조건 중에서 여름에 濕熱로 인하여 痿를 이루게 되는 조건을 강조하였고, 痿病 치료에 清暑益氣湯과 清燥湯을 제시하였다.

清暑益氣湯은 清燥湯과 구성 약물이 비슷하다. 清暑益氣湯에는 益氣生津하는 人參, 麥門冬, 五味子 즉 生脈散이 들어가 있고, 祛濕할 수 있는 蒼朮, 白朮, 澤瀉 등이 들어가며, 熱을 없앨 수 있는 黃蘗 등이 들어간다. 李東垣은 清暑益氣湯을 설명할 때 黃芪, 人參, 甘草 등 補中益氣하는 약물로 君藥을 삼고, 甘草, 橘皮, 當歸身 등의 甘辛微溫하여 養胃氣하고 和血脈하는 약물로 臣藥을 삼는다고 했는데³²⁾, 이로써 볼 때 李東垣은 獨取陽明을 胃氣를 補하는 방법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清燥湯은 柴胡, 黃連, 酒黃蘗, 麥門冬, 生地黄, 炙甘草, 豬苓, 神麴, 人參, 白茯苓, 升麻, 橘皮, 白朮, 澤瀉, 蒼朮, 黃芪, 五味子 등으로 구성되어 腎이 휴손되어 생긴 痿厥로 허리 아래쪽이 시들어 연약해지고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며 두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치료할 때 쓰는데, 이는 益氣生津하는 人參, 麥門冬, 五味자로 구성된 生脈散에 豬苓, 茯苓, 澤瀉를 더하여 濕熱을

31) 商務印書館 編. 脾胃論(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3. “六七月間, 濕令大行, 子能令母實, 而熱旺濕熱相合, 而刑庚大腸, 故寒涼以救之燥金受濕熱之邪, 絕寒水生化之源. 源絕則腎虧, 痿厥之病大作. 腰已下痿軟, 癱瘓不能動行, 走不正, 兩足軟側, 以清燥湯主之.”

32) 商務印書館 編. 內外傷辨惑論(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378-379. “內經云, 陽氣者, 衛外而爲固也. 炅則氣泄. 今暑邪干衛, 故身熱自汗. 以黃耆, 人參, 甘草, 補中益氣爲君. 甘草, 橘皮, 當歸身, 甘辛微溫, 養胃氣, 和血脈爲臣. 蒼朮, 白朮, 澤瀉, 滲利除濕. 升麻, 葛根, 苦甘平, 善解肌熱, 又以風勝濕也. 濕勝則食不消而作痞滿, 故炒麴甘辛, 青皮辛溫, 消食快氣. 腎惡燥, 急食辛以潤之, 故以黃蘗苦辛寒, 借甘味瀉熱補水虛者, 滋其化源. 以五味子, 麥門冬, 酸甘微寒, 救天暑之傷庚金爲佐也.”

소변으로 배출하고, 黃連, 黃柏 등을 더하여 降火한 처방으로 清暑益氣湯에 當歸身, 葛根, 靑皮가 더 들어가고 清燥湯에 生地黃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두 처방의 약물 구성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清燥湯도 清暑益氣湯과 마찬가지로 黃芪, 人參, 甘草 등 補中益氣하는 약물로 君藥을 삼고, 甘草, 橘皮 등의 甘辛微溫하여 養胃氣하는 약물로 臣藥을 삼았음을 알 수 있다. 清暑益氣湯과 清燥湯은 모두 肺燥를 다스려 肺金의 清氣가 되살아날 수 있게 하면서도 暑邪로 손상된 胃氣를 되살려주는 처방으로, 李東垣은 獨取陽明을 胃氣를 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痿病 치료에 胃氣를 補하는 방법을 써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5) 朱震亨의 견해

朱震亨의 논설 중 獨取陽明과 관련된 내용은 『局方發揮』에 나온다.

“혹자가 말하기를 ‘風은 內外를 구분하고, 痿病이 熱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命을 들을 수가 있었습시다. 手陽明大腸經은 肺의 腑이고, 足陽明胃經은 脾의 腑입니다. 痿病을 치료함에 陽明 한 經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용되었으나, 아직 발휘되지 않은 말이니, 원컨대 밝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모든 痿는 肺熱에서 생긴다.’라고 하였으니, 다만 이 한 구절에서 곧 治法의 대의를 볼 수가 있다. 經에서 말하기를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하니, 南方을 瀉하고, 北方을 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生機에 나아가 補瀉를 말한 것이니, 大經大法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東方木은 肝이고, 西方金은 肺이며, 南方火는 心이고, 北方水는 腎이다. 오행 가운데에 오직 火가 들어 있다. 腎은 비록 두 개가 있으나, 水가 그 하나에 거처하여 陽은 항상 유여하고, 陰은 항상 부족하므로 經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水가 두 개의 火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치는 필연적으로 金의 體는 건조하고 上部에 거처하며 氣를 주관하고 불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脾土의 성질은 습하고 가운데에 거처하며 四肢를 주관하고 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火의 성질은 위로 불타오르고 만약 하고자 하는 바에 절제가 없으면 水가 自양을 잃어 火가 두려워하는 것이 적어져 자기를 勝하던 氣(水)을 업신여기게 되니, 肺가 火邪를 얻어서 熱한다. 木의 성질은 剛急하고 肺가 熱을 받으면 金이 自양을 잃어 木이 두려워하는 것이 적어져 자기를 勝하던 氣(金)을 업신여기게 되니, 脾가 木邪를 얻어서 손상된다. 肺에 열이 있으면 한 몸을 경영하고 통섭할 수가 없으며, 脾가 손상되면 四肢가 쓰일 수 없게 되어 모든 痿의 병이 일어난다. 南方을 瀉하게 되면 肺金이 清해져서 東方이 實하지 않게 되니, 어찌 脾가 손상됨이 있겠는가. 北方을 補하게 되면 心火가 내려가서 西方이 虛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肺熱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陽明이 實해지면 宗筋이 적셔지고, (宗筋이) 능히 뼈를 묶어서 關節을 滑利하게 할 수가 있다. 痿病을 치료하는 법은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駱龍吉도 또한 말하기를 風火가 이미 타오르니 마땅히 滋腎水해야 한다고 했고, 東垣 선생도 黃柏을 취하여 君藥으로 삼고, 黃芪 등의 補藥으로 보좌하여 모든 痿病을 치료하니 일정한 방도가 없다. 痰積을 겸하는 경우가 있고, 濕이 많은 경우가 있고, 熱이 많은 경우가 있고, 濕熱이 서로 반반인 경우가 있고, 氣를 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에 임하여 처방을 짓는 것이 그 痿病을 잘 치료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藥 가운데에 요체가 있으니, 만약 장차 몸을 조리함에 있어서 마땅함을 잃는다면 뛰어난 의사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이 생산해 낸 것은 陽을 만들어 내고, 厚味는 열을 나게 하니, 선현들의 격역에서 다만 痿病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음식을 淡薄하게 먹지 않고 厚味한 음식을 먹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안전할 수가 없을 것임을 안다.”³³⁾라고 했다.

33) 商務印書館 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680. “或曰風分內外, 痿病因熱,

朱震亨과 或者의 대화를 통해 朱震亨이 胃를 足陽明胃經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陳無擇의 觀點을 계승하여 痿病이 外因이 아니라 內傷(內臟氣不足所致)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痿病을 치료함에 獨取陽明을 직접적으로 응용하기 보다는 『難經·七十五難』에서 제시한 瀉南補北法을 강령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陽明이 實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을 생각해보면 朱震亨의 瀉南補北法은 水火를 조절하여 五行의 相生相克 관계성 속에서 木金, 즉 肝肺의 虛實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素問·痿論』의 獨取陽明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치법이고, 간접적으로 陽明을 實하게 하는 방법이다.

朱震亨이 痿病 치료에 제시한 처방은 健步丸, 二陳湯加減方, 四物湯加減方, 四君子湯加減方, 大補丸, 補腎丸, 虎潛丸 등이고, 음식을 담박하게 먹는 것도 중요시 했다.

朱震亨이 痿病에 쓴 처방들을 살펴보면, 陽有餘陰不足의 觀點에서 瀉南補北과 滋陰降火하는 약물들을 주로 쓰고, 濕熱, 濕痰, 氣虛, 血虛에 따라 辨證施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처방들을 살펴보면 우선 健步丸은 李東垣의 처방으로 『蘭室秘藏·自汗門』에 나온다. 약재 구성은 防己, 羌活, 柴胡, 滑石, 炙甘草, 瓜蒌根, 澤瀉, 防風, 苦參, 川烏, 肉桂 등으로

되어 있고, 무릎이 힘이 없어 펴면 굽힐 수가 없고 굽히면 펼 수 없으며, 허리와 등과 다리가 묵직해서 보행이 어려운 병증을 치료할 때 쓴다. 防己, 滑石, 瓜蒌根, 苦參 등의 약물로 濕熱을 주로 없애서 痿病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인다. 燥濕하고 降陰火하기 위해 朱震亨은 健步丸 처방에 蒼朮, 黃芩, 黃柏, 牛膝 등의 약물을 더하여 썼다.

濕痰으로 인한 痿病에는 二陳湯加減方을 썼는데, 燥濕化痰하고 和胃降逆하는 半夏, 陳皮, 茯苓, 甘草에 燥濕력을 높이기 위해 蒼朮, 白朮을 더하고, 降陰火하는 黃芩, 黃柏, 竹瀝에 약물의 찬 성질을 中和하기 위한 生薑汁 등의 약물을 더하여 썼다.

氣虛로 인한 痿病에는 人參, 茯苓, 白朮, 甘草로 구성된 四君子湯에 燥濕력을 높이기 위해 蒼朮을 더하고, 降陰火하는 黃芩, 黃柏 등의 약물을 더하여 썼고, 血虛로 인한 痿病에는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으로 구성된 四物湯에 燥濕하고 降陰火하는 蒼朮, 黃柏 등의 약물을 더하여 썼다.

大補丸은 腎經의 火를 없애고, 下焦의 濕을 건조시켜 筋骨軟弱을 치료하는데, 炒黃柏을 양에 상관하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섞어 丸藥으로 만든 후에 氣虛에는 補氣藥에 넣어 복용하고, 血虛에는 補血藥에 넣어 복용한다.

補腎丸은 乾薑, 黃柏, 龜板, 牛膝, 陳皮를 가루 내어 生薑汁을 넣어서 만든 丸藥으로 痿厥이 중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虎潛丸은 黃柏, 龜板, 知母, 熟地黃, 陳皮, 白芍, 鎖陽, 虎骨, 乾薑 등을 가루 내어 술로 쏘 풀이나 죽으로 빚은 丸藥으로 肝腎不足으로 筋骨痿軟한 것을 滋陰降火와 補肝腎強筋骨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처방이다.

또한 朱震亨이 처방 외에도 몸을 조리함에 있어서 厚味를 피하고 음식을 담박하게 먹는 것을 중요시한 것은 자연의 沖和之味로 補陰하고, 心火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精의 不足을 補하는 방법이다.³⁴⁾ 이상에서 朱震亨이 痿病에 쓴 처방들을

既得聞命矣。手陽明大腸經，肺之腑也。足陽明胃經，脾之腑也。治痿之法，取陽明一經，此引而未發之言，願明以告我。予曰，諸痿生於肺熱，只此一句，便見治法大意，經曰，東方實西方虛，瀉南方補北方，此固是就生尅言補瀉，而大經大法，不外於此。東方木，肝也。西方金，肺也。南方火，心也。北方水，腎也。五行之中，惟火有二，腎雖有二，水居其一，陽常有餘，陰常不足，故經曰一水不勝二火，理之必然，肺金體燥而居上，主氣，畏火者也。脾土性濕而居中，主四肢，畏木者也。火性炎上，若嗜慾無節，則水失所養，火寡于畏，而侮所勝，肺得火邪，而熱矣。木性剛急，肺受熱，則金失所養，木寡于畏，而侮所勝。脾得木邪而傷矣。肺熱則不能管攝一身，脾傷則四肢不能爲用，而諸痿之病作矣。瀉南方，則肺經清，而東方不實，何脾傷之有。補北方，則心火降，而西方不虛，何肺熱之有，故陽明實，則宗筋潤，能束骨，而利機關矣。治痿之法，無出於此。駱隆吉亦曰，風火既熾，當滋腎水，東垣先生，取黃柏爲君，黃芪等補藥之輔佐以治諸痿，而無一定之方。有兼痰積者，有濕多者，有熱多者，有濕熱相半者，有挾氣者，臨病製方，其善於治痿者乎。雖然藥中肯綮矣。若將理失宜，聖醫不治也。天產作陽，厚味發熱，先哲格言，但是患痿之人，若不淡薄食味，吾知其必不能安全也。”

34) 商務印書館編，格致餘論(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서울，대성문화사，1995. pp.669-670. “或問，內經謂精不足者，補之以味，又曰，地食人以五味，古者年五十食肉，子今年過七十矣，盡卻鹽醢，豈中道乎，何子之神茂而色澤也。

살펴보건대, 陽有餘陰不足의 관점에서 滋陰降火하는 약물들을 주로 쓰고, 濕熱, 濕痰, 氣虛, 血虛에 따라 辨證施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朱震亨이痿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瀉南補北法의 강령을 제시한 것은 取陽明만으로痿病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五行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水火의 축을 자극하는 瀉南補北法이痿病의 치료법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6) 孫一奎의 견해

孫一奎의 논설 중 獨取陽明과 관련된 내용은 『醫旨緒餘·痿論』에 나온다.

“生生子³⁵⁾가 말하기를 세상에서痿病을 앓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痿病을 치료하는 법은 매우 적으니, 그것을 고찰해 보건대, 內經에서 또한 특별히 篇目を 세워 논의가 쓰지 않고, 病機를 총괄함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치법이 적은 것은 후인들이 후 능히 經의 요지를 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內經을 살펴보건대, 모두 氣熱을 五痿가 병을 받게 되는 근원(胎)이라고 여겼으니, 가히痿病의 근본이 모두 氣熱로부터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째서인가?痿病의 처음에 五臟이 肺熱葉焦로 인하여 전해져서 서로 교대하여 전염되는 것이 肺에서 말미암는 것은 肺가 모든 氣를 통괄하고, 心の 덩개이며, 臟의 우두머리이고, 임금을 돕는 師傅로 治節이 말미암아 연계되기 때문이다. 五痿의 질병은 거의 肺의 한 氣가 흘러서 전파되는데 마치 재상이 한 분의 뜻을 받들어서 천하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 다만 陽明을 취

하는 것으로 치료를 삼고, 五痿의 다름으로써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또한 肺熱을 근본으로 삼고, 五痿를 標로 삼았으므로 치료함에 있어서 다만 陽明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로 정해짐을 일컫는다. 여기서의 취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補하라고 하는 뜻이 있고, 소위 攻法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陽明은 五臟六府의 바다로 宗筋을 적서주는 것을 주관하고, 또한 衝脉은 經脉의 바다로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서 합하며, 陰陽은 宗筋의 모임을 총괄하고, 氣街에서 만나 陽明이 우두머리가 되어 모두 帶脉에 속하고, 督脉에 이어져 陽明이 虛하면 宗筋이 늘어지고, 帶脉이 당겨지지 못하므로 다리가 무력해져 쓰지 못하게 된다. 이에 그 陽明을 補하여 穀氣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衝脉으로 하여금 왕성하게 하며, 帶脉으로 하여금 당겨지게 하고, 宗筋으로 하여금 적서지게 하면 이로써 능히 뼈를 묶고 관절을 활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치료를 다만 陽明을 취하라고 하였고, 五痿라서 다르게 하지 않았다. 이미 ‘熱’이라는 글자로서 근본을 삼았고, 陽明으로써 쓰임을 삼았으니, 症에 임하여 처방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확충함에 있으니, 책이 어찌 다 말해줄 수가 있겠는가.”³⁶⁾라고 하였다.

味有出於天賦者, 有成於人爲者, 天之所賦者, 若穀菽菜果自然沖和之味, 有食人補陰之功, 此內經所謂味也. 人之所爲者, 皆烹飪調和偏厚之味, 有致疾傷命之毒, 此吾子所疑之味也. 今鹽醢之卻, 非眞茹淡者, 夫麥與粟之鹹, 粳米山藥之甘, 蔥薤之辛之類, 皆味也, 子以爲淡乎. 安於沖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 以偏厚之味爲安者, 欲之縱, 火之勝也, 何疑之有. 內經又曰, 陰之所生, 本在五味, 非天賦之味乎. 陰之五官, 傷在五味, 非人爲之味乎. 聖人防民之具, 於是爲備.”

35) 孫一奎의 號를 일컫는다.

36) 商務印書館 編. 醫旨緒餘(欽定四庫全書 3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1121. “生生子曰, 世之病痿者甚多, 而治痿之法甚少, 攷之內經, 且特立篇目非泛. 常摠括病機者倫也. 治法之少, 由後人或未能盡悉經旨. 今按內經, 皆以氣熱爲五痿受病之胎, 則可見痿之病本, 皆自氣熱中來也. 何者, 痿躄之始, 五臟因肺熱葉焦, 傳相遞染緣肺者, 統諸氣, 心之蓋, 臟之長, 君之相傳, 而治節之所由係焉. 五痿之疾, 殆肺之一氣流傳, 猶宰相承一旨, 以令天下也. 觀其獨取陽明爲治, 不以五痿異者, 此又可見以肺熱爲本, 而五痿爲標, 故治獨取陽明, 是謂定於一也. 此取字, 有教人補之之意, 非所謂攻取也. 蓋陽明乃五臟六府之海, 主潤宗筋, 又衝脉者, 經脉之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脉, 而絡於督脉, 陽明虛, 則宗筋縱, 帶脉不引, 故足痿不用, 茲補其陽明, 使穀氣充, 衝脉盛, 帶脉引, 宗筋潤, 是以能束骨, 而利機關, 故其治獨取陽明, 而不以五痿異也. 既得以熱字爲本, 陽明爲用, 臨症處方, 則在人自擴充之, 書曷能盡所言哉.”

孫一奎는 痿病이 肺熱에서 근원하는데 이를 肺가 지닌 생리작용으로써 설명하였다. 肺가 모든 氣를 통괄하고, 心의 덩개이며, 臟의 우두머리로 임금을 도와 治節이 나오고, 肺가 재상으로써 임금의 뜻을 받들어 천하에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다른 臟腑에 영향을 미쳐서 痿病이 발생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肺熱이 근본이 됨을 말하였으나, 陽明의 치료가 왜 肺熱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孫一奎는 또 『醫旨緒餘·痿論』에서 朱震亨의 瀉南補北法을 變通의 법으로 평가하고, 陽明과 肺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生生子가 말하기를 劉宗厚가 일컬기를 痿病을 치료하는 처방이 대부분 모자라고 생략된 것은 모두 中風 조문 안에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朱震亨이 痿病을 치료할 적에 風으로 치료하지 말라는 것을 계승한 것인데, 이 말은 병의 요지를 깊이 얻은 것이다. 風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쫓고 흠어야 한다. 痿病은 내부에서 갈무리한 것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므로 치료는 다만 補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다만 丹溪의 痿篇 가운데에 이미 內經의 痿病을 치료할 적에 다만 陽明을 취한다는 설로써 설정하여 혹자가 묻고 이에 써 陽明을 취하는 뜻을 답하지 않고, 難經의 瀉南補北의 법을 따서 痿病을 치료하는 방법을 삼았으니, 이것도 또한 법 밖의 변통하는 뜻이다. 다만 묻는 바 陽明을 취하는 뜻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결국 어떤 곳에서 발명했는가? 이것은 밝히려고 하였으나, 다시 덮어버린 것이니, 어찌 하여 陽明은 胃이고, 坤土이며, 萬物이 써 資生하는 것이고, 脾의 表가 된다고 말하지 않는가? 脾胃가 한 번 虛하면, 肺氣가 먼저 끊어진다. 肺虛하면 능히 臟腑를 宣通하고, 經絡을 節制할 수가 없다. 반드시 胃厚하면 脾充해지고, 脾充하면 능히 津液을 布散해서 臟腑로 하여금 각각 받는 것이 있게 하고, 四肢로 하여금 건강하게 운명하기를 이와 같게 하니, 어디에

肺葉이 타고 어디에 痿躄이 있겠는가? 痿病의 끝과 처음을 알고자 한다면 肺胃의 사이일 뿐이니, 肺熱葉焦하면 능히 모든 經을 절제할 수가 없고, 胃氣가 허약하면 장부가 氣를 받는 것이 없어서 帶脈이 당겨지지 않고, 宗筋이 말라서 痿躄이 접쳐지므로(징조) 內經에서 痿病을 치료할 적에 다만 陽明을 취한 것이다. 陽明은 五臟六腑의 바다이고, 獨이라는 한 글자는 족히 가히 그 치료를 다했다는 말을 일컬으니, 저 丹溪의 瀉南補北의 법은 혹 가히 肺腎의 痿에 베풀 수가 있는 것이요, 그 肉痿에 있어서 감히 시도해볼 수가 있겠는가?”³⁷⁾라고 했다.

孫一奎는 痿病의 처방이 대부분 中風 조문 안에 혼입되어 치료 처방이 많이 모자란데 痿病은 내부에서 갈무리한 것이 부족해서 나타나게 되는 질병이므로 치료는 補法이 있을 뿐이고, 丹溪의 瀉南補北法은 변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痿病의 처음과 끝이 肺胃의 사이에 있다고 했다. 胃가 두터우면 脾가 충실해져 사망으로 진액을 잘 퍼뜨릴 수 있으므로 痿病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脾胃가 虛해지면 肺氣가 먼저 끊어지고, 肺虛하면 臟腑를 宣通하고 經絡을 절제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孫一奎가 獨取陽明을 말할 때 肺胃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고, 肺胃 중 胃가 더 근원적임을 강조하였으며, 獨取陽明을 脾胃를 補하는 치료법으로 이해하였음을

37) 商務印書館 編. 醫旨緒餘(欽定四庫全書 3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1122-1123. “生生子曰, 劉宗厚謂治痿方, 多缺畧者, 皆因混入中風條內故也. 此皆承丹溪, 治痿不得作風治, 斯言深得病旨. 風乃外人者, 故當逐散. 痿則內藏不足所致, 治惟有補而已. 但丹溪痿篇中, 既以內經治痿獨取陽明之說, 設爲或問矣, 乃不答所以取陽明之旨, 而以難經瀉南補北之法, 摘爲治痿之方, 斯亦法外變通之意. 第不思所問取陽明之義, 竟何所發明, 是欲彰之, 而復蔽之也, 胡不曰, 陽明者, 胃也, 坤土也. 萬物之所以資生焉, 爲脾之表, 脾胃一虛, 肺氣先絕, 肺虛則不能宣通臟腑, 節制經絡, 必胃厚則脾充, 脾充則能布散津液, 使臟腑各有所稟受, 四肢健運如是, 則何有於葉焦, 何有於痿躄也. 要知痿之終始, 只在肺胃之間而已矣. 肺熱葉焦, 則不能節制諸經, 胃氣虛弱, 則腑臟無所受氣. 帶脈不引, 宗筋枯槁, 而痿躄之所由兆, 故內經治痿, 所以獨取乎陽明也. 以陽明爲五臟六腑之海也, 獨之一字, 是謂足可以盡其治之辭. 彼丹溪瀉南補北之法, 或可以施肺腎之痿, 其於肉痿敢試之乎.”

보여준다.

孫一奎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赤水玄珠·論治痿獨取陽明之旨』에서 獨取陽明의 법이 痿病의 예방 차원에서 쓰임을 말하였다.

“生生子가 말하기를 內經에서 痿病을 치료함에 다만 陽明을 취하는 법은 곧 痿病을 치료하는 대강이다. 그 병의 근원은 모두 肺로부터 오고, 바야흐로 싹틀 때이므로 다만 陽明을 치료하여 宗筋으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여 능히 뼈를 묶고 관절을 활리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그 근원을 맑게 하면 흐름은 저절로 맑게 된다는 것을 일컫는다. 설령 五痿의 질병이 이미 고착화되어 陽明이 虛하고 宗筋이 늘어지며 帶脈이 당겨지지 않고 다리가 痿痺하여 쓰지 못할 때에 다만 陽明을 치료하면 이것은 또한 늦다. 五痿가 주관하는 것에 당하여서는 쉬어서 치료하면 거의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다.”³⁸⁾고 하였다.

또한 孫一奎의 『孫氏醫案·徐客兒子筋痿風』에는 孫一奎가 痿病을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醫案이 나와 있다.

“大塘 지역의 徐公은 손님을 꺼리던 자인데 그 자식이 나이가 20살 정도였고, 肌肉은 몹시 여위었으며, 콩무늬와 무릎이 腫大되었고, 손과 팔꿈치와 어깨가 모두 부었는데 부은 곳이 모두 아프고 열이 났다. 당시의 의사가 風으로 보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고, 濕痿으로 보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고, 鶴膝風과 鼓椎風으로 여겨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욱 위중해져 평상의 요 위에 엎드려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을 뿐이었다.

집안사람들이 당황하여 시초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점대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周易의 象으로는 죽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醫師가 화를 걸어 두었는데, 다만 멀리 동방에 있고, 떨어진 거리가 백리 정도 멀지만, 영접하여 치료하면 무탈합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하여 나를 방문해서 맞이하여 치료했다. 내가 그 脈을 진맥해 보니, 六部가 모두 弦했다. 그 안색을 보니 창백했다. 음식은 적게 먹었는데, 때는 長夏가 이르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筋痿症입니다. 책에서 말하기를 ‘모든 痿는 風으로 여겨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세가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전에 썼던 약들이 모두 風劑였기 때문일 뿐입니다. 風은 능히 血을 상하게 할 수 있고, 血이 마르면 筋이 더욱 자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물며 弦脈은 肝木이 주관하는 것으로 앞을 찌르면서 이르는데 이것은 肝이 유여하여 脾土가 相克을 받아 脾가 손상되어 마땅히 마시고 먹는 것이 적어져 肌肉이 썩어 형세가 장차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모든 痿病은 다만 陽明을 취하여 치료를 삼는다.’고 했는데, 陽明은 腸과 胃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마땅히 腸胃를 滋補하여 마시고 먹는 것이 날로 늘어나야 五臟六腑가 받는 것이 있게 되고, 營衛가 윤행하여 氣가 따듯해지고, 血이 적서져 調養함에 봄에 이르러 맑은 기운이 時令을 담당하고, 君火가 일을 주관하는 때에 宗筋이 적셔지고, 관절이 滑利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환자가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능히 말을 듣고 서로 신뢰할 수가 있어서 나에게 치료를 간청하여 내가 처방을 세웠다. 五加皮, 薏苡仁, 甘草, 蒼耳子, 枸杞子, 回陽, 人參, 杜仲, 黃蘗, 黃芪, 防風 등으로 구성된 약을 20제 복용하니 정신이 건장해지고, 허리와 등골뼈가 튼튼해졌으며, 음식을 더 먹게 되었다. 다만 간혹 夢遺가 있어서 杜仲을 빼고 遠志와 當歸를 더하여 30첩을 복용하게 했더니 전부 나았다.”³⁹⁾고 했다.

38) 商務印書館 編. 赤水玄珠(欽定四庫全書 3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08. “生生子曰, 內經治痿獨取陽明之法, 乃治痿之大槩也. 原其病, 皆自肺中來, 在於方萌之時, 故獨治陽明, 使宗筋潤, 能束骨而利機關之意, 是澄其源, 而流自清之謂也. 設五痿之疾既痼, 而陽明虛, 宗筋縱, 帶脈不引, 足痿不用之時, 而獨治陽明, 斯亦晚矣. 當即其五痿之所主者, 而參治之, 庶得以盡其用也.”

표 1. 諸家の 獨取陽明의 이해와 痿病 치료를 위해 제시한 處方

醫家	獨取陽明의 이해	痿病 치료를 위해 제시한 處方
陳無擇	胃를 補	加味四觔丸, 麋角丸, 上丹, 衛生湯, 中丹, 小丹, 芎桂散, 藿香養胃湯
劉完素	陽明을 補	四君子湯, 八物湯, 十全散, 金剛丸, 牛膝丸, 煨腎丸, 腎氣丸, 八味丸
張子和	胃氣를 소통	以鹽水涌吐, 瀉下劑(舟車丸과 瀦川散)
李東垣	胃氣를 補	清暑益氣湯, 清燥湯
朱震亨	足陽明胃經을 補	健步丸, 二陳湯加減方, 四物湯加減方, 四君子湯加減方, 大補丸, 補腎丸, 虎潛丸
孫一奎	脾胃 혹은 腸胃를 補	東垣清燥湯, 健步丸, 三因加味四斤丸, 藿香養胃湯, 大防風湯, 鹿角膠丸, 二陳湯加減方, 四物湯加減方, 四君子湯加減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孫一奎는 獨取陽明을 말할 때 陽明을 胃, 脾胃 혹은 腸胃로 보아 陽明을 胃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넓게 脾胃, 혹은 腸胃를 補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脾胃의 관계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脾胃 중 胃가 더 근원적임을 강조하였으며, 獨取陽明의 치료법이 이미 이루어진 痿病의 치료에 쓰이기보다는 痿病의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孫氏醫案』에서 孫一奎는 실제 痿病 치료에 있어서 五加皮, 薏苡仁, 甘草, 蒼耳子, 枸杞子, 回陽, 人參, 杜仲, 黃蘗, 黃芪, 防風 등으로 구성된 약을 투여하여 痿病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이로써 보건대 孫一奎는 실제 痿病 치료는 補肝腎하고 強筋骨하는 杜仲, 五加皮와 補氣하는 人參, 甘草, 黃芪와 祛風濕하는 蒼耳子, 防風 등을 넣어 실제 상황에 맞게 辨證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39) 韓學杰 主編. 孫一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7. “大塘徐公諱客者, 其子弱冠, 肌肉瘦削, 尻膝腫大. 手肘肩 顯皆腫, 腫處皆痛而發熱. 時醫有作風治者, 有作濕痰治者, 有作鶴膝鼓施風治者. 愈治愈重, 伏床蓐奄奄一息耳. 舉家倉惶而決之善揲者釋策曰: 易象可不死, 天醫上卦, 第遠在東方, 相去百里而遙, 迎而治之無恙也. 因訪予而迎之治. 予診其脈, 六部皆弦. 觀其色青而白, 飲食少, 時當長至. 予曰: 此筋痿症也. 書云諸痿皆不可作風治. 病勢幾危者, 以前藥皆風劑耳. 風能傷血, 血枯則筋愈失養. 況弦脈乃肝木所主, 攙前而至, 是肝有餘而脾土受敵. 脾爲所傷, 宜飲食少, 肌肉削而勢將危也. 『內經』曰: 諸痿獨取於陽明爲治. 陽明者, 腸與胃也. 法當滋補腸胃, 俾飲食日加, 五臟六腑有所稟受. 營衛流行, 氣煦血濡, 調養至春, 淑氣司令, 君火主事之時, 宗筋潤而機關可利也. 病者在雖少, 而能聞言相信, 懇予爲治. 予立方: 五加皮, 苡仁, 甘草, 蒼耳子, 枸杞子, 回陽, 人參, 杜仲, 黃柏, 黃芪, 防風, 服二十劑而精神壯, 腰背健, 飲食加. 惟間或夢遺, 則爲減去杜仲而加遠志, 當歸, 三十帖而全安矣.”

III. 結論

『素問·痿論』에서 痿病의 치료법으로 獨取陽明을 제시한 후 醫家들의 獨取陽明에 대한 이론과 痿病 치료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家들에 따라 獨取陽明의 陽明을 胃, 陽明經, 足陽明胃經, 脾胃, 腸胃 등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게 파악하였다.
2. 陳無擇과 劉完素 등 대부분의 醫家들이 痿病을 虛勞의 범주에 포함하여 獨取陽明을 補陽明의 방법으로 이해하였으나, 張子和는 涌吐나 瀉下의 방법으로 胃氣를 소통시킴을 중시하였고, 孫一奎는 예방차원에서 補陽明할 것을 주장하였다.
3. 李東垣은 痿病을 이루게 하는 여러 조건 중에서 여름에 濕熱로 인하여 痿를 이루게 되는 조건을 강조하였고, 痿病 치료에 清暑益氣湯과 清燥湯을 제시하였다.
4. 朱震亨이 痿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瀉南補北法의 강령을 제시한 것은 取陽明만으로 痿病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五行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水火의 축을 자극하는 瀉南補北法이 痿病의 치료법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5. 『素問·痿論』에서 獨取陽明을 痿病의 치료법으로 제시하였으나, 醫家들의 獨取陽明에 대한 이론과 痿病 치료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痿病을 虛勞의 범주로 보고 길로 드러나는 陽明의 氣血을 補하기도 하였으나, 좀 더 근원적으로 肝腎을 補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鞠申丹, 宗蕾. 從“治痿獨取陽明”談痿證的針灸治療. 中國針灸. 2015. 35(9).
2. 寧魯寧 外 3人. 從“治痿獨取陽明”論治糖尿病周圍神經病變. 四川中醫. 2018. 36(10).
3. 劉森 외 4人. 基於“治痿獨取陽明”論治特發性肺纖維化. 中華中醫藥學刊. 2018. 36(6).
4. 劉永剛 外 4人. “治痿獨取陽明”新解. 四川中醫. 2012. 30(4).
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
6. 白裕相. 『黃帝內經·痿論』의 痿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1).
7. 樊永平. 痿證理論的源流.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1. 34(1).
8. 商務印書館 編. 格致餘論(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9. 商務印書館 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0. 商務印書館 編. 內外傷辨惑論(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1. 商務印書館 編. 脾胃論(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2. 商務印書館 編. 三因極一病證方論(欽定四庫全書 11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3. 商務印書館 編. 素問病機氣宜保命集(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4. 商務印書館 編. 素問玄機原病式(欽定四庫全書 12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5.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6. 商務印書館 編. 醫旨緒餘(欽定四庫全書 3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7. 商務印書館 編. 赤水玄珠(欽定四庫全書 3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8. 徐文霞, 舒儀瓊, 方朝暉. 試從“治痿獨取陽明”論治糖尿病骨質疏松症. 河北中醫. 2019. 41(7).
19. 王寶華, 趙京生. “治痿獨取陽明”考釋. 北京中醫藥. 2010. 29(7).
20. 王中琳, 王新陸. 《內經》論痿探蹟.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2. 26(5).
21. 張邵青, 邱美榕, 吳迫樂. “治痿獨取陽明”的古今研究及臨床應用. 陝西中醫藥大學學報. 2016. 39(2).
22. 曹繼忠, 溫川飜. 痿證之“治痿獨取陽明”淺析.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8. 18(92).
23. 趙世運, 尚學瑞. 治痿獨取陽明闡義. 中醫研究. 2003. 16(5).
24. 陳無擇 著.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5. 韓學杰 主編. 孫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0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